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 도 자 료</h1>	http://www.kisti.re.kr
대 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식 042 - 869 - 0960 / 강동기 0967 문의: 김경환 정보기반실장(1894 / 010-3891-3669)		
배포번호 : 2016-13 배포일자 : 2016.04.04.(월)	매 수 : 보도자료 2매	배포처 : 대외협력실

국가 전자정보 컨소시엄, KISTI로 일원화된다

-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일원화 -

- 기존 KISTI의 KESLI에 KERIS의 대학 대상 공동구매 통합 예정 -

□ 해외 전자 학술정보를 공동구매하는 국가 전자정보 컨소시엄 기능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한선화, 이하 KISTI)로 일원화된다.

□ 지난 6월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르면, 정부는 KISTI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으로 나뉘어졌던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사업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 (기재부 결정 사유)

○ 그동안 전자저널 중심의 공동구매는 KISTI가, 대학 대상의 웹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공동구매는 KERIS가 맡아왔다.

구분	KISTI	KERIS
	공동구매 ¹⁾	공동구매
대상기관	대학, 연구소, 의료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	대 학
대상품목	전자저널 ²⁾ 중심	웹DB ³⁾ 중심
참가기관수	645개 기관	203개 기관
비용절감 효과(2015년)	8,724억원	168억원

<표> 컨소시엄 기능조정 방향>

1) 컨소시엄 참가기관의 비용절감과 업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KISTI에서 운영함
 2) 특정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원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
 3)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술저널에 수록된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함

□ 이번 결정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상의 국가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KISTI가 국내 대학 및 공공기관·의료기관·기업 등의 전자정보 공동구매를 전담한다.

○ KISTI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시엄(KESLI)'을 운영하며 연간 약 9,000 억원에 가까운 구독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 최근 십 여 년간 해외의 거대 상업출판사들이 학술정보 구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에서, 국가 전자정보 컨소시엄의 일원화가 더 큰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끝)